

곡성 세계장미축제, 편안한 침() 있다

지난 해 곡성 세계장미축제는 젊은 연인들이 데이트하기 좋은 장소, 인생 사진 찍기에 좋은 핫 플레이스였다.

올해에는 곡성 심진강기차마을에서 오는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열흘간 제8회 곡성세계장미축제를 개최한다.

장미축제가 열리는 동안 1만 2천여 평의 장미공원에서는 매혹의 장미향을 뿜어내며 관람객들을 발길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장미공원은 서유럽산 1004개 품종의 형형색색의 장미꽃을 배경으로 인생 사진을 남기려는 관람객들로 가득 차 축제기간 내내 북새통을 이루는데, 시끌벅적한 축제 분위기 속에서 잠깐의 여유를 즐기고 아름다운 장미꽃의 낭만을 온전히 즐기고 싶은 이들을 위한 특별한 공간도 마련되어 있다.

내부 리모델링을 통해 새롭게 태어난 유리온실 카페 ‘공무도화’는 유리온실 속 다양한 식물들로 가득 차있는 편안한 침의 공간이다.

유리온실 카페 ‘공무도화’ 오픈 관람객 호응 일상생활 속 편안한 공간 제공...포토존도



이곳은 지난 어린이날 첫 문을 열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으며, 일상생활 속 휴식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편안한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유리온실은 파란 하늘이 보이며, 일상생활 속 휴식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편안한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에 느낄 수 있도록 해준다. 종려죽이나 허브식물은 싱그러움 초록 분위기를 만들어 숲이 주는 편안함을 더욱 상승시킨다.

전장에서 늘어진 흰색 천의 부드럽고 시원한 느낌은 바닥에 자리한 예쁜 테이블과 의자와 어우러져 관람객들이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여유와 호젓함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또한, 유리온실의 작은 벽과 숨겨진 공간에는 연인들의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포토존이 있다. 웨딩 포토월, 꽃받침 조명, 꽃비 부명비닐 우산, 벽걸이 꽃볼, 미니정원은 사람이 넘치는 인생 사진을 남길 수 있다.

유리온실 ‘공무도화’ 카페는 온실 숲 속에서 바라보는 생동감 있는 축제의 재미와 편안한 침의 여유와 낭만을 동시에 누릴 수 있으며, 특별한 추억을 사진 속에 담고 싶은 이들에게는 놓쳐서는 안 될 공간이다.

곡성=김광휘 기자

자살예방(Gate Keeper) 지킴이 양성 교육

영암군보건소, 오는 16일 지역리더 및 공무원 200명 대상

영암군보건소는 오는 16일 지역리더 및 공무원 200명 대상으로 자살예방 지킴이 게이트키퍼 양성 교육을 실시한다.

게이트키퍼란(Gate Keeper)가족, 친구, 이웃 등 주변 사람의 자살 위험 신호를 인지하여 전문가에게 연계하도록 훈련받은 사람을 뜻한다. 사회의 근원인 가정과 가장 가까이 근접하게 활동하고 있는 지역사회 리더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게이트키퍼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의료취약대상자 및 사각지대 주민의 자살을 막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직원 의무 교육이기도 한 교육이수자에게는 보건복지부 인증 수료증이 수여된다. 영암군은 게이트키퍼 양성교육을 지역주민 대상으로 계속 실시 할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지역사회에 생명존중문화 확산과 더불어 안전한 영암 만들기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암=조대호 기자



“군민광장이 야외 전시장으로 변했어요”

해남군, 문예회관 개관 16주년 기념 조각전시회

해남문화예술회관이 조각 전시장으로 탈바꿈했다.

해남군은 개관 16주년을 맞아 우리나라 대표 조각가들의 최신작 40여점을 선보이는 ‘자연과 조형의 향기’ 작품 전시회를 열고 있다.

문화예술회관 전시실 뿐 아니라 야외에 전시된 작품들은 신록이 푸르른 군민광장의 주변 경관과 어우러져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감흥을 전해주고 있다.

이번 전시회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지방공공 문화공감 전시기획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선정돼 개최되고 있다.

그럼 공모사업에 선정돼 개최되고 있다.

생명과 환경을 주제로 들과 나무, 스테인리스스틸, 점토, 필름, 알루미늄까지 다양한 재료를 사용한 작품들은 형식과 내용에 구애받지 않고 장르를 초월한 현대 미술의 흐름을 엿볼 수 있다.

전시회에는 현대 추상조각의 선구자 박석원 작가, 서울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을 제작한 김영원 작가 등 국내 대표 조각가 3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담양군, ‘제96회 어린이날’ 기념 표창

담양군은 지난 5일 대나무축제장 주무대에서 관내 어린이와 부모 등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96회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념식은 모범어린이 및 유공자 표창, 조용의 담양군수 권한대행의 축하 메시지와 아동권리현장 낭독에 이어 수복체육관의 태권 체

조 시연과 우리네 어린이집과 대치 지역이동센터, 꿈키움드림오케스트라 등의 공연으로 채워졌다.

조용의 군수 권한대행은 “어린이가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그리고 창의성과 다양성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행복한 담양’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제 강진에서 안전하게 산후조리하세요”

전남공공산후조리원 2호점 강진의료원에 신축

전남공공산후조리원 2호점이 강진의료원에 신축돼 오는 17일 개원한다.

9월 강진군에 따르면 전남공공산후조리원 2호점은 지상 1층에 504㎡(180평) 규모로 장애인 산모실을 포함한 10개의 산모실, 신생아실, 좌욕실, 다목적실, 휴게실 등 친환경 자재의 최고급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다.

강진 산후조리원은 신생아 감염관리를 위해 모자동실(母子同室)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신생아의 외부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입구에 에어워셔, 신생아실 공기 멸균기 등을 갖추고 첫 입소 신생아에 대해 24시간 격리실 집중관찰을 실시한다.

종사자 예방접종은 물론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와 연계해 정기

적 회진, 방역소독 등을 통해 감염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강진 산후조리원 이용료는 2주에 154만원으로 민간산후조리원에 비해 저렴하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셋째 자녀 이상 출산가정, 다문화 가정, 국가유공자가족, 중증장애인 산모 등에 대해서는 이용료의 70%를 전남도와 강진군이 지원한다.

송나운 강진군보건소장은 “공공산후조리원 등 공공보육환경 기반

조성은 저출산 문제 해결과 인구감소를 막기 위한 시급한 대책이다”며 “강진군보건소는 강진의료원과 협조해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강진 공공산후조리원에 예약수령 산모는 30여 명이다.

산후조리원 이용과 감염료 지원 등에 대해서는 강진군보건소 방문보건팀(061-430-3562)이나 강진의료원 공공산후조리원(061-430-1010)으로 문의하면 된다.

해남에 위치한 전남공공산후조리원 1호점은 지난 2015년 9월 개원했다.

강진=김영일 기자

영암군, ‘일과 가정’ 다 잡는 공직문화 혁신

하절기 집중 공무원 휴가 연중 상시 활성화 앞장

기(氣)의 고장 영암군에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하절기에 집중된 공무원 휴가를 연중 상시 휴가 사용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영암군에 따르면 이 같은 상시휴가 정착을 위해 산하직인 분기별 휴가계획을 수립하고 ‘연가 사용 활성화’와 ‘불필요한 업무 개선’ 등 공직 문화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이울러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이

월별·분기별 연가 사용을 활성화하여 전 직원들이 연중 자유롭게 휴가를 떠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간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경직된 공직문화 등으로 연가사용 실적(개인별 최대 28일까지 사용가능한 일수에 비해)은 2017년의 경우 8.4일을 사용하여 크게 못 미치는 실정이다.

영암군에서는 기존 공직사회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혁신적인 조직문

화를 도입하여 직원 삶의 만족도 제고와 업무 능력 향상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최근 회자되고 있는 워라벨(work-life balance)을 강조, 가족과 함께하는 공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자녀양육을 위한 효율적인 ‘유연근무제’를 적극 도입하고, 매주 수요일은 ‘아근 없는 날’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공직자들의 연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장기재직휴가와 ‘동호회 운영’, 휴양시설(콘도)과 제휴 등 복지 후생제도 등도 확대하여 공직자의 재충전 휴가시간인 ‘연가’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내수경기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부문 휴가사용 조기 정착을 위해 다양한 휴가 활성화 방안을 마련, 활기차고 생산적인 근무 문화 조성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정시기에 편중되지 않고 분기별, 연중 분산하여 연가를 실시하며 자유롭고 계획적인 사용을 보장하고 업무 특성이 있는 직원(환경실무원)의 경우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고 있다.

군에서는 앞으로 부서별, 개인별로 연가사용 실적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부서별 연가사용현황을 게시, 실적이 저조한 부서는 특별 관리할 계획이다.

영암=조대호 기자

◆ 광주 지역 안내			
계림 010-3635-7195	백운 010-2943-8374	광산 010-5604-6533	
중암 010-3365-6200	학운 010-4166-1810	송하 010-8620-1925	
광천 010-6612-8599	광천 010-6612-8599	임동 010-2656-4543	
금호 010-6636-2775	양산 010-2646-3205	오치 010-7532-3313	
상무 010-5359-7406	봉암 010-6634-5084	북구 010-4601-2080	
화정 010-8438-3819	봉선 010-9474-0212	동운 018-611-7751	
진월 010-2615-8374	진월 010-2615-8374	용봉 010-4601-2080	
		두암 010-2684-6091	
◆ 시 외 안내			
강진 010-4606-0660	영암 010-5655-2415		
담양 010-3629-9016	완도 010-9578-5900		
무안 010-5234-2313	장성 010-5287-7711		
보성 061-853-9125	장흥 010-6234-6226		
순천 010-2300-9083	진도 010-3081-5203		
광양 010-5604-6981	함평 010-3625-3160		
여수 010-6655-8503	화순 010-2077-6464		
영광 010-3611-3081	곡성 010-3615-1088		

화순 이서적벽

“지역언론의 바른길을 열어갑니다”

湖南新聞

전라도의 정문지

▶ 구독신청 및 기사제보 및 독자 의견 (062) 224-5800

이메일 : ihonam@naver.com

팩 스 : (062)222-5548

▶ 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광주시 동구 학동 633-3 번지 정도프라자 5층)